

신안군, 갯벌 탄소저장 확인...기후변화 대응 나선다

갯벌 탄소 흡수력 규명 연구보고회 생태적 가치·블루카본 전략 모색 탄소 흡수량 산정 보전·활용 중점 연간 124만톤 흡수...과학적 규명

신안의 갯벌의 탄소저장 가치가 무려 56조원에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갯벌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 자원으로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17일 신안군은 지난 11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갯벌 탄소 흡수력 규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국립공주대학교 유영한 교수, 신안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신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논의하고 블루카본으로서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신안 갯벌이 보유한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해 탄소배출권 확보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갯벌 유형별로 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신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연간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고 갯벌 보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이 총 1773km에 이르며 탄소 저장량은 약 13억톤으로 추산됐다.

갯벌의 탄소 저장 가치를 평가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의 잠재적 가치를 추정할 결과, 갯벌 토심 40m를 기준으로 생태적 가치는 약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 유형별로는 빨갯벌(82.85%)이 주요 탄소 저장 기지로 총 12억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혼합갯벌과 모래갯벌도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평가됐다.

신안 갯벌에 매년 1cm의 퇴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탄소 흡수량은 124



지난 11일 신안군이 '갯벌 탄소 흡수력 규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신안군 제공

만톤에 달하며 이를 생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98억~141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돼 신안 갯벌의 보전 및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군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

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신안 갯벌을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저장 자원으로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모범음식점 54개소 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무안군은 지난 12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 54개소를 2024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은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서 교부 △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지원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평가는 기존 모범업소와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이행 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 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정책 참여 기여도 등을 현지 방문하여 진행했다.

이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 결과 85점 이상으로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질적으로 위생 수준이 높은 5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김산 군수는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발굴하여 무안의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스를 향상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강진군, 내달 20일까지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앞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임시 휴관 20일부터 28일까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딸라소플의 해수를 여과하여 사용했으나 휴관 기간 동안 해수 안전 교체 및 여과재 교체를 실시해 수질을 관리하고 해수플 난간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치유센터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비를 서둘러 추진하고 휴관 기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 휴관 일정과는 별개로 해양문화치유,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한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도군, 청년 창업 스텝 운영 22일부터 5주간

진도군은 오는 22일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정신 함양 교육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교육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마케팅 활용, 금융 관리, 세무·회계)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디지털 교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22일부터 5주간 총 12회 진행된다.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교육 희망자는 20일까지 진도군 청년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cjfak1130@naver.com)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 홈페이지 또는 진도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창업스텝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업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 태세 강화

무안군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12월15일까지 지정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을 선발하고 기존 산림사업장 관리요원과 함께 산불 대응 인력 30명을 기동단속반 5개 반으로 편성

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읍면에서는 상층근무조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징후를 관찰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개별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은 무안·목포·신안·진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해 산불 진화 헬기를 운영해 대형산불 초동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산림청과 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올해 산불발생 0건 목표에 도전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을 빈틈없이 마칠 계획이다"며 "군민들께서도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Pre 해조류 박람회 연다

2026년 5월 개최 목표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프레(Pre) 완도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프레(Pre) 완도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 가치 재조명 및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26년 5월 6일간 개최

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 기본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박람회는 Pre-EXPO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용역 수행 기관에서는 박람회 개최 여건, 기본 구상, 행사장 조성 계획, 콘텐츠 및 세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보고했다.

완도군의 해양치유 및 해양바이오산업 등 비교우위 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재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군은 1월 말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보고서를 토대로 박람회 계획을 더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 군이 국내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임을 알릴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며 "특히 완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